

◇ATS 판막치환수술의 임상성적

문승철, 임창영, 김대식, 구원모, 양진영, 이건, 이현재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ATS 판막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St. Jude 판막의 재질과 모양을 개선하여 그 우수성과 안전성이 기대되는 기계판막이다. ATS 판막을 이용한 심장판막 치환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외래추적 결과를 분석하여 임상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 1995년 5월부터 1998년 7월까지 39개월간 ATS판막 치환 수술을 받은 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전후 NYHA 기능분류, Prothorombin time, 심초음파를 통한 판막전후 압력차, 합병증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 환자의 연령은 최저 28세에서 최고 70세로 평균 51 /- 10.1세였고, 남녀의 비는 22:26이었다. 판막질환의 원인은 류마티스성이 35례로 가장 많았고 퇴행성 병변이 12례, 세균성 심내막염 1례였다. 23명의 환자에서 승모판 치환술을, 13명의 환자에서 대동맥판 치환술 그리고 12명에서 중복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 가장 흔히 사용된 기계판막의 크기는 승모판 29mm, 대동맥판 21mm였다. 수술 전 NYHA기능분류는 평균 2.6 /-0.8에서 술 후 1.4 /-0.5로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다. 수술후 조기 합병증은 부정맥 3례, 출혈 2례, 뇌경색 1례, 급성 신부전증 1례, 수술후 정신증 1례, 창상 감염 1례였다. 판막과 관련된 만기 합병증은 없었으며 항응고요법은 와파린을 사용하여 평균 INR은 대동맥판치환술 1.9 /-0.5, 승모판치환술 2.4 /-0.3, 중복판막치환술 2.5 /-0.6으로 출혈등의 특별한 합병증없이 유지되었다. 평균 판막전후 압력차는 승모판막이 3.1 /-0.8mmHg, 대동맥판막이 12.7 /-8.3mmHg였다. 병원 사망은 패혈증 1례, 급성 신부전증 1례, 저심박출증 1례로 3례에서 발생하였으며 사망률은 6.2%였다. 그 외의 환자는 외래추적관찰에서 별다른 합병증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으며 평균 추적조사기간은 16.2 /-9.9개월로 추적률은 91.7%였다.

결론 : 이상의 결과에서 저자들은 ATS 판막이 기능적인 명에서 우수한 임상결과를 보였으며, 타 기계판막과 비교하여 판막전후 압력차는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항 혈전성에 있어서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나 향후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책임저자: 임창영(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흉부외과)
발표자: 문승철(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흉부외과)